

노인의 성공적 노화와 영향요인

한수정 · 한진숙 · 문영숙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in Elders

Han, Su Jeong · Han, Jin Sook · Moon, Young Sook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successful aging (SA) in elderly individuals and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influence SA. **Methods:** The subjects included 207 elderly individuals from D city, Korea. The data were obtained between July 1 and August 30, 2008. The participants were assured of anonymity and confidentiality. For the evaluation, Kim & Shin's SA scale, Lawton's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IADL) scale, Jon's self-esteem scale, Kee's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n (GDSSF-K), and Hong's productive activities scale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he t-test, analysis of variance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SPSS/WIN 10.0 program. **Results:** The maximum score for SA was 34, and the mean score was 22.62. It was found that SA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to IADL, self-esteem, depression, and productive activity. Depression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SA and it accounted for 40.6% of the total variance in SA. Self-esteem, productive activity, living situation, economic status, and age together accounted for 62.1% of the total variation in SA. **Conclusion:** Depression, self-esteem, and productive activity were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influence SA.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nurses should assist elderly individuals in order to facilitate SA. Moreover, individualized nursing management strategies must be developed in order to facilitate SA.

Key Words : Elder, Successful aging, Self-esteem, Depression, Productive activit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7.2%가 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래로, 2009년 10.9%가 되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 2026년 20.8%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과거에는 소수집단으로 이해되던 노인이 사회의 중요한 다수집단으로 부상하게 되면서 한국사회의 중요한 화두는 단연 노인이 되었다.

노인에 대해 지금까지는 빈곤과 질병, 고독, 의존 등 부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노인들은 여러모로 기능이 쇠퇴하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며, 무기력하고 부담이 되는 존재로서 부각되어왔다(Kim, 2008).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이 비교적 좋은 건강상태에서 활기차게 오래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쇠퇴하지만 내적으로 보다 원숙해지는 노년기의 모습을 강조하며, 전생애 발달적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 (Jeong, 2008; Kahng, 2008; Yoon & Yoo, 2006). 이와 같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일부계층만을 대

Corresponding address: Han, Su Jeo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685 Gasuwon-dong, Seo-gu, Daejeon 302-718, Korea.
Tel: 82-42-600-6344, Fax: 82-42-545-5326, E-mail: sjhan@konyang.ac.kr

투고일 2009년 5월 4일 수정일 2009년 8월 24일 게재확정일 2009년 8월 25일

상으로 삼거나 문제중심적인 관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긍정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Kim, 2008).

즉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늙어가고 보람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영위할 것인가? 이러한 개념은 가족과 지역사회 노인 돌봄 부담감과 비용의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도 관련이 되며, 노인 자신, 가족, 실무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중요하게 되었다(Jeong, 2008; Kahng, 2008; Yoon & Yoo, 2006).

외국에서는 1986년 세계노년학회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부터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Kim, 2008). 연구자들마다 성공적 노화를 낙관적인, 긍정적인, 생산적인, 풍요로운, 새로운, 확신하는 노화 등의 여러 가지 개념으로 언급하고 있지만(Cho, 2002), 최근 가장 부각되고 있는 접근법으로는 Rowe-Kahn의 적극적 사회참여 모델을 들 수 있다. 노화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대표적 학자로서 성공적 노화를 결과가 아닌 적응하는 과정으로서 이해하고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좌우되어 누구든지 성공적 노화로 옮겨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낮은 질병률 및 질병에 의한 장애 위험 회피, 높은 수준의 정신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그리고 적극적인 인생참여의 세 가지로 보면서 지속적인 인생참여가 성공적 노화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Jeong, 2008; Kahng, 2008; Kim, 2008; Yoon & Yoo, 2006).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2000년 이후 학문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일부 성공적인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탐색되었다(Hong, 2005; Kahng, 2008).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요인으로는 신체적 영역에는 만성적 건강상태, 기능적 건강, 주관적 건강상태 및 건강실천 행동(Kahng, 2008; Lee, 2008; Yoon & Yoo, 2006)등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규명되었으며, 정신적 영역에는 우울, 인지기능 및 자기효능감이 사회적 영역에는 경제활동 참여여부, 월 소득, 사회적 지지 및 여가시간이 관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ahng, 2008; Lee, 2008). 즉, 성공적 노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신체적 건강, 심리적 측면, 사회적 측면 등 3가지 측면에서 이루어

어졌으며, 이 3가지 측면이 별개가 아니라 역동적으로 서로 맞물려 있음을 알 수 있다(Kim, 2008).

성공적 노화를 위한 다학제적 접근에 간호학에서도 관심을 갖고 최근에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성공적 노화 척도개발을 시도하였다(Kim & Shin, 2005). 노화는 우리 모두가 경험해야 하는 삶의 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위한 사회전반적인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는 다차원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신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자아존중감, 우울, 생산적 활동 정도를 변수로 고려하였으며, 관련 변수들이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 증진을 위한 간호학적 전략개발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IADL, 자아존중감, 우울, 생산적 활동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와 IADL, 자아존중감, 우울, 생산적 활동과의 관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별 영향 정도를 확인한다.

3. 용어정의

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란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정신적으로 성숙해가는 심리적 발달과정으로 정신, 신체상의 질병이 없어 기능적이고 사회관계도 유지하며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Hong, 2005)으로, 본 연구에서

는 Kim과 Shin(200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2)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노인의 도구적 일상수행능력은 신체적 자립보다 한
단계 위의 수단적 자립수준에서 노인의 활동능력을
의미하며 전화사용하기, 금전관리하기, 교통수단 이용
하기 등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
다(Lawton, 1971). 본 연구에서는 Lawton(1971)의 IADL
도구를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있
는 인간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국
문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값을 의미한다.

4) 우울

우울이란 근심, 침울함, 무기력감 및 무가치감을 나타
내는 기분상태(Battle, 1978)로서 본 연구에서는 Sheikh
와 Yesavage(1986)에 의해 개발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short form을 우리나라 노인에게 맞게 수정한
Kee(1996)의 한국판 노인 우울 간이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Korean version, GDS-K)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5) 생산활동

생산활동이란 금전적인 보상과는 무관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가치있는 활동(Klumb & Baltes, 1999)
으로 본 연구에서는 Hong(2005)이 개발한 도구로 측정
한 점수를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파악하고 그 영
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D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2곳과
경로당 5곳에서 207명을 편의표출방식으로 선정하였
다. 본 연구 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65세 이상
의 남녀 노인,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와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는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표본수의 결정은 유의수준 α 는 .05, power는 .80,
effect size는 medium(.25)으로 검정력 분석 후 산출된
표집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는 최소 195명 이었다(Power & Precision, 2009)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자가 보고식 질문지를 사용
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일반적 특성 8문항, 자아존
중감 10문항, 우울 15문항, 생산적 활동 9문항과 성공
적 노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성공적 노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im과
Shin(2005)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발당시 5
점 리커트 척도였으나 개발자가 노인들의 문맹률과 5
점 척도에 응답함에 있어서 조심성 증가에 따른 심리
적 특성으로 “그저 그렇다”에 응답하는 경우가 많아
‘예’, ‘아니오’로 답하는 이분 범주로의 전환이 필요하
다는 제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 ‘예’는 1
점, ‘아니오’는 0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총 3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하위영역은 ‘자기효능감
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그리고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으로 이루어져 있다. 1점 척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0 ~ 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공적 노화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당시의 신뢰도 Cronbach's α =
.94였으며,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은 .90,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 .84, ‘부부간의 동반
자적 삶’ .92,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80으로 나타났

으며,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7$ 이었다.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은 .75,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 .67,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 .82,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67로 나타났다.

2) 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Lawton (1971)이 개발한 IADL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바느질이나 못질(수공)하기, 전화사용, 금전관리, 외출/여행하기, 금전관리, 약복용, 물건사기, 집안일하기 및 본인의 식사준비를 독립적으로 이행하는 정도를 측정하였다. 3점 척도로 '전혀 할 수 없다(1점)', '약간 어렵다(2점)', '혼자 할 수 있다(3점)' 으로 구성되어 8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가능한 점수는 8~24점으로 나타난다. Jang, I. S.(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국문으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5개의 긍정문항과 5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가능한 총점의 범위는 10~5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 이었으며, Jon(197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62$ 였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4) 우울

노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Sheikh와 Yesavage (1986)에 의해 개발된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Short Form을 우리나라 노인에 맞게 Kee(1996)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 우울 간이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Korean Version, GDSSF-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아니오(0점)'으로 계산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는 0~1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들의 기준을 참고하여 총합에서 5점 이상부터 10점 미만은 경증 우울, 10점 이상은 중증 우울이라고 판단한다. Kee(1996)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2$ 이었다.

5) 생산적 활동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Hong(2005)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유급활동과 무급활동으로 구분되며, 무급활동에는 공식활동 4개(투표하기, 복지관, 노인대학 다니기, 가입단체 참여하기, 자원봉사 활동)와 비공식활동 4개(친구만나기, 가사활동, 성인자녀 돕기, 취미활동)가 있어 총 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자주 그렇다(3점)' '가끔(2점)' '아주 드물게(1점)' '하지 않음(0점)'으로 계산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는 유급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 3점, 하지 않는 경우 0점을 주었기 때문에 0-27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생산활동 수준이 높은 것이다. Hong(2005)의 연구에서는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2$ 이었다.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8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연구자들이 D시에 위치한 노인복지관 2곳과 경로당 5곳을 직접 방문하여 대표자들에게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았으며, 편의 표출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연구의 참여의사를 묻고 서명동의를 받았다. 모든 대상자에게 언제든지 연구 참여의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렸으며, 서면 동의서에도 명시하였다. 직접 설문지 기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본인이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직접 기입이 어려운 노인은 연구자들과 훈련받은 연구보조자 2인이 설문내용을 읽어드린 후 연구자가 기입하기도 하였다. 총 23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나 그중 답변이 불충분한 자료 23부를 제외한 207부(회수율 90%)를 최종 자료분석에 이용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값,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one-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을 위해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편의추출 하였으므로 모집단을 대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제한이 있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남자 노인은 17.4%, 여자 노인은 82.6%를 차지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70세에서 74세 사이의 노인이 37.75%로 가장 많았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2.44세 였다. 대상자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무학이 21.2%, 고등학교 졸업이 21.7%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대상자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불교와 무교가 각각 30.5%와 10.6%를 나타냈다. 동거상태는 노인 부부만 살고 있는 경우가 44.4%로 가장 많았으며, 결혼한 아들내외와 살고 있는 경우가 25.1%로 그 다음 순위였으며,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 노인 대상자들의 결혼 상태는 54.1%가 결혼한 상태이며, 별거가 1.0%로 나타났으며 사별한 경우는 44.9% 나타났다. 대상자가 지각하는 경제상태는 '보통이다'

가 58.9%로 가장 많았고, '좋다'가 19.8%, '나쁘다'가 19.3%로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나쁘다'가 3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좋다' 29.5%, '보통이다' 28.0%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07)

Characteristics	n (%) or M ± SD
Age (yrs)	72.44 ± 5.72
65 ~ 69	56 (27.0)
70 ~ 74	78 (37.7)
75 ~ 79	52 (25.1)
≥ 80	21 (10.2)
Gender	
Male	36 (17.4)
Female	171 (82.6)
Educational level	
Illiteracy	50 (21.2)
Elementary school	81 (39.1)
Middle school	45 (21.7)
High school	25 (12.1)
≥ University	6 (2.9)
Religion	
Protestant	82 (39.6)
Catholic	22 (10.6)
Buddhist	63 (30.5)
None	40 (19.3)
Marital status	
Married	112 (54.1)
Separation	2 (1.0)
Widowed	93 (44.9)
Living situation	
Alone	44 (21.3)
With parter	92 (44.4)
With unmarried son & daughter	12 (5.8)
With married son	52 (25.1)
With married daughter	7 (3.4)
Economic status	
Very good	2 (1.0)
Good	41 (19.8)
Moderate	122 (58.9)
Bad	40 (19.3)
Very bad	2 (1.0)
Health status	
Very good	6 (2.9)
Good	61 (29.5)
Moderate	58 (28.0)
Poor	73 (35.3)
Very poor	9 (4.3)

2.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IADL, 자아존중감, 우울 및 생산활동 정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는 평균 22.62점으로 중간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요인별 평균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이 8.97점;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이 7.11점;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이 1.27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5.26점이었다.

대상자의 IADL은 평균 22.36점(범위 8~24점)으로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좋은 편이었으며, 자아존중감은 34.84점(범위 22~49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이었고, 생산적 활동은 13.85점(범위 0~26점)으로 보통정도로 나타났고, 우울은 3.80점(범위 0~14점)으로 우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경증 우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2.7%이었으며, 중증 우울은 8.7%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성공적 노화의 정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연령($F = 6.89, p = .00$), 교육수준($F = 7.47, p = .00$), 결혼상태($F = 6.63, p = .00$), 동거유형($F = 5.05, p = .00$), 지각된 경제상태($F = 8.94,$

$p = .00$), 지각된 건강상태($F = 5.32, p = .0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성별, 종교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3). 사후검정 결과 연령에서 80세 이상보다 65세에서 69세, 그리고 70세에서 74세 집단의 성공적 노화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에서는 무학 집단이 다른 집단들 보다 유의하게 성공적 노화가 낮게 나타났다. 동거유형에서는 결혼한 딸과 함께 사는 노인의 경우가 다른 동거 유형들 보다 유의하게 성공적 노화가 낮게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IADL, 자아존중감, 우울, 생산적 활동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의 정도와 IADL($r = .449, p = .000$), 자아존중감($r = .622, p = .000$), 우울($r = -.637, p = .000$), 공식적활동($r = .469, p = .000$), 비공식적 활동($r = .455, p = .000$)과 생산적 활동($r = .541, p = .000$)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요인별 성공적 노화 정도와 제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IADL과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r = .341, p = .000$), ‘자녀의 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r = .202, p = .004$),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r = .188, p = .007$),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r = .438, p = .000$) 요인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successful aging, IDAL, self-esteem, depression, productive activity (N = 207)

Variables	Factors	n (%)	Possible range		M ± SD
			Min	Max	
Successful aging			6	34	22.62 ± 4.64
	Self efficacy		1	13	8.97 ± 2.95
	Satisfaction with adult children's success		0	8	7.11 ± 1.65
	Couple life like companion		0	3	1.27 ± 1.27
	Self control		1	6	5.26 ± 1.07
IADL			8	24	22.36 ± 2.65
Self-esteem			22	49	34.84 ± 5.66
Depression			0	14	3.80 ± 3.44
	No depression	179 (67.1)			
	Mild depression	47 (22.7)			
	Severe depression	18 (8.7)			
Productive activity			0	26	13.85 ± 5.23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Table 3. Successful aging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 = 207)

Characteristics	M ± SD	t or F (p)
Age (yrs)		
65 ~ 69	23.43 ± 4.33	6.89 (0.00) b, a > d
70 ~ 74	23.68 ± 4.59	
75 ~ 79	21.48 ± 4.49	
≥ 80	19.38 ± 4.08	
Gender		
Male	21.49 ± 5.39	-1.58 (0.11)
Female	22.85 ± 4.45	
Educational level		
Illiteracy	20.02 ± 4.44	7.47 (0.00) e, d, c, b > a
Elementary school	22.67 ± 4.98	
Middle school	24.07 ± 3.39	
High school	24.25 ± 3.82	
≥ University	26.17 ± 3.06	
Religion		
Protestant	22.49 ± 4.58	0.33 (0.80)
Catholic	22.68 ± 4.43	
Buddhist	23.05 ± 4.63	
None	22.15 ± 4.99	
Marital status		
Married	20.61 ± 4.87	6.63 (0.00)
Separation	17.50 ± 0.07	
Widowed	21.54 ± 4.08	
Living situation		
Alone	20.91 ± 4.82	5.05 (0.00) b, c, d, a > e
With parter	23.95 ± 4.43	
With unmarried son & daughter	23.67 ± 3.62	
With married son	21.94 ± 4.31	
With married daughter	19.29 ± 4.60	
Economic status		
Very good	24.00 ± 0.00	8.94 (0.00)
Good	25.32 ± 3.53	
Moderate	22.68 ± 4.29	
Bad	19.88 ± 5.11	
Very bad	17.00 ± 4.24	
Health status		
Very good	24.33 ± 3.26	5.32 (0.00)
Good	24.57 ± 3.98	
Moderate	22.28 ± 4.02	
Poor	21.10 ± 5.07	
Very poor	23.20 ± 5.31	

이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자아존중감과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r = .653, p = .000),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r = .139, p = .000), SC(r = .510, p = .000)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우울은 ‘자

기효능감을 느끼는 삶’(r = -.587, p = .000),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r = -.227, p = .000),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r = -.311, p = .000),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r = -.430, p = .000)요인이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생산적 활동과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r = .606, p = .000),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r = .100, p = .015),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r = .497, p = .000)과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5.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별 영향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던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와 동거유형은 가변수 처리하여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울이 전체 변량의 40.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생산적 활동,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상태 및 연령의 순이었으며, 이를 다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이 62.1%였다.

IV. 논 의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와 그 영향요인을 구명해보고자 시도된 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평균 22.62 ± 4.64(최저 6, 최고 34), 평균평점 0.75 ± 0.15(도구범위 0 ~ 1)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백분율 환산 점수로 75점에 해당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Shin(2005)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3.40점으로 나타나 백분율 환산점수는 68점이 되어 본 연구결과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Lee(2008)의 연구에서는 3.60으로 나타나 백분율 환산점수로 72점이 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와 이상의 연구로 볼 때 우리나라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중상정도인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Correlations among IADL, Self-esteem, Depression , Productive activity and Successful aging (N = 207)

Variables	(1)	(2)	(3)	(4)	(5)	(6)	(7)	(8)	(9)	(10)	(11)
(1) IADL	1.000										
(2) Self-esteem	.356 (.000)	1.000									
(3) Depression	-.392 (.000)	-.513 (.000)	1.000								
(4) Productive activity	.461 (.000)	.537 (.000)	-.374 (.000)	1.000							
(5) Formal	.378 (.000)	.464 (.000)	-.308 (.000)	.835 (.000)	1.000						
(6) Informal	.397 (.000)	.448 (.000)	-.325 (.000)	.884 (.000)	.486 (.000)	1.000					
(7) Successful aging	.449 (.000)	.622 (.000)	-.637 (.000)	.541 (.000)	.469 (.000)	.455 (.000)	1.000				
(8) SE	.341 (.000)	.653 (.000)	-.587 (.000)	.606 (.000)	.478 (.000)	.549 (.000)	.871 (.000)	1.000			
(9) SW	.202 (.004)	.139 (.047)	-.227 (.001)	.032 (.651)	.121 (.083)	-.042 (.546)	.430 (.000)	.080 (.252)	1.000		
(10) CL	.188 (.007)	.134 (.055)	-.311 (.000)	.100 (.015)	.084 (.226)	.075 (.286)	.487 (.000)	.224 (.001)	.076 (.278)	1.000	
(11) SC	.438 (.000)	.510 (.000)	-.430 (.000)	.497 (.000)	.421 (.000)	.429 (.000)	.676 (.000)	.617 (.000)	.005 (.083)	.175 (.012)	1.000

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E, self efficacy; SW, Satisfaction with adult children's success; CL, couple life like companion; SC, self control.

Table 5.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of variables on the Successful aging (N = 207)

Variables	R	R ²	β	t	p
Depression	.637	.406	-.329	-6.043	.000
Self-esteem	.726	.526	.260	4.448	.000
Productive activity	.753	.567	.228	4.240	.000
Living situation	.777	.603	.194	4.335	.000
Economic status	.783	.613	-.127	-2.547	.012
Age	.788	.621	-.094	-2.026	.044

다. 요인별 평균평점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이 0.69점;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이 0.88점;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이 0.42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0.87점이었다.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의 평균 점수가 가장 낮았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Kim과 Shin(2005)의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났으며, 조사 대상자중 44.9%가 사별을 하여 배우자 없이 생활하기 때문에 생각된다. 그러나 Lee(2008)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삶’이 그 다음 순위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성공적 노화 여부를 예측하는 유효한 변인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과 자녀와의 접촉빈도를 들고 있는 Yoon과 Yoo(2006)의 연구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삶과 부부관계에 큰 비중을 두는 한국적 문화 특성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대상자의 IADL 정도는 최저 8점에서 최고 24점중 평균 22.36점으로 평균평점 2.79점이 되어 대부분이 노인이 한 개 정도의 기능을 제외하고는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IADL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Kang(2006)의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최저 22점에서 최고 49점중 평균 34.84점으로 평균평점 3.48점이 되어 중간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재가노인 대상의 경우 31.71점으로 중간이상의 점수를 보였던 연구(Cho, Lee, & Kim, 1999)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Jang I. S.(2006)의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경우 1.8점-3점 범주에서 평균 2.46점으로 중간수준보다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였는데 독거노인은 재가노인들보다 건강상태나 경제상태 및 사회적 활동 정도가 낮게 나타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노인이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높으며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데, 환경과 주변상황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노인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성취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3.80점(범위 0~14점)으로 우울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상자의 우울 정도는 경증 우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22.7%이었으며, 중증 우울은 8.7%로 나타났다. Won과 Kim(2008)의 연구에서는 방문간호 대상 노인의 우울 정도가 평균 6.52로 나타났으며, 경증 우울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43.4%였고, 중증 우울은 22.6%가 해당되었다. 또한 Kim, Yang, Kim, Kim과 Jeon(2007)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는 우울점수가 평균 8.75점이었고, 우울군이 77.9%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방문간호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의 반수 이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한 여성노인이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대상자의 생산적 활동 정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6점 중 평균 13.85점으로 백분율 환산점수 51.2점이 되었다. Hong(2005)의 연구에서도 15.30점으로 백분율 환산점수로 56.7점에 해당되는 생산적 활동 수준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은 보통 정도였으며 특히 공식 활동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점수가 가장 낮았으며, 비공식활동에서는 자녀 돕기 활동 점수가 가장 낮았다. 높게 나타난 활동으로는 투표하기와 가사일 하기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른 집단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노인들의 생산적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하며, 자원봉사 항목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노인의 활동영역을 개발하고 독려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물론, 이런 생산 활동은 성별, 배우자의 유무, 교육정도, 동거식구, 과거직업, 용돈 및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다(Hong, 2005)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와 IADL, 자아존중감, 우울, 생산적 활동의 관계에서 우울은 성공적 노화 정도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IADL, 자아존중감과 생산적 활동은 성공적 노화 정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성공적 노화의 하부요인별 제 변수들과의 관계에서도 우울은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IADL, 자아존중감과 생산적 활동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

다. 선행연구에서도 우울정도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높아지며(Kim, Lee, & Sok, 2008; Seo, Chung, & Kim, 2005),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고(Kim, C. G & Park, H. J., 2007), 성공적 노화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Lee, 2008)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정신건강의 기초가 되고 질적인 삶을 유지시켜주는 기반이며(Shin, Kim, & Hwang, 2004), 노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 있는 한 개체로 생각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고무시켜 자아존중감을 유지해 줄때 여생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Kim & Kim, 2008). 또한 노년기에 참여하는 활동유형이 많아지면 다양한 영역에서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빈도가 많아지며, 이것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Hong, 2005).

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 상태와 건강상태였다.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비교할 수 없으나 생활만족도나 삶의 질을 연구한 결과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Kim, D. B와 Park, E. Y.(2007)는 연령이나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이 좋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하였다. Seo, Chung과 Kim(2005)은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교육수준, 경제 상태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이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85세 이상의 노인이 삶의 질 점수가 낮았고,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의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Kim, Lee와 Sok(2008)은 독거노인보다는 가족과 함께 동거하는 노인의 삶의 질이 더 좋고 경제수준이 삶의 질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같았다. Choi(2005)도 경제수준이 좋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별에 따른 차이에서는 본 연구 결과와 일부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라 성공적 노화 정도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없었으나(Kim & Kim, 2008; Kim, C. G & Park, H. J., 2007),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인 경우 삶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여(Kwon & Cho, 2000; Lee, 2008; Seo, Chung, & Kim, 2005) 상이

한 결과를 나타냈다. 추후 연구를 통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에서 본 연구에서는 사별한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점수가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Jang, S. H. (2006)의 연구결과와는 유사하였으나, Kim과 Kim(2008)의 연구에서는 홀로된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자마다 다른 연구결과를 나타내어 추후 연구를 통해 성별과 결혼상태에 따른 성공적 노화정도를 재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를 긍정적 방향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령, 동거유형, 경제적 상태 및 교육수준 등 관련 있는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한 간호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 미치는 변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우울, 자아존중감, 생산적 활동,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상태 및 연령이 성공적 노화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측하는 순서대로 보면 우울이 가장 큰 관련변수로서 전체 변량의 40.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자아존중감, 생산적 활동,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상태 및 연령의 순이었으며, 이를 다 포함시켰을 때 설명력이 62.1%였다. Lee(2008)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심리적 요인에서는 우울이 사회적 요인에서는 자원봉사참여 유무와 사회적 지지가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Seo, Chung과 Kim(2005)의 농촌지역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가장 크게 예측하고 있는 변인이 우울이었으며, 지각된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수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부 유사하였다. Kim, C. G.와 Park, H. J. (2007)의 복지관 이용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예측 변인을 확인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42%의 영향력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지각의 자아실현과 용돈 만족도가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Hong(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등에 다니기 활동이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또한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경제활동, 보살핌노동활동과 사회참여활동의 세 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삶의 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Kim, C. G.와 Park, H. J. (2007)의 연구에서도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생산적 활동 유형은 사회참여활동이라고 하였다. 즉, Kim 등 (2007)이 지적한 것처럼 노인들에게 친목모임, 독서, 사회참여 모임 같은 가족 외 활동 중심 여가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것이다.

즉,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생산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지각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심리적, 경제적 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와 영향요인을 규명하여 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위한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D시에 위치한 2개의 노인복지관과 5개의 경로당에서 연구참여를 동의한 노인 207명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08년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자가보고형 질문지를 이용하였으며, 본 연구자와 훈련받은 연구보조자 2인이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도구는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기 위한 Kim과 Shin(2005)이 개발한 도구, Lawton(1971)의 IADL 측정도구, 노인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Jon(1974)이 국문으로 번안한 도구, 노인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Kee(1996)에 의해 표준화된 한국판 노인 우울 간이 척도(Geriatric Depression Scale-Short Form; Korean Version, GDSSF-K)와 Hong(2005)이 개발한 생산적 활동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수집한 자료의 분석은 SPSS/WIN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S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증상 정도로 나

타났다. 하위 영역 중 '부부간의 동반자적 삶'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공적 노화 정도에서 연령, 교육수준, 결혼상태,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 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 정도는 IADL, 자아존중감과 생산적 활동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우울과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넷째, 대상자의 성공적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우울, 자아존중감, 생산적 활동,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상태 및 연령이 있었으며, 가장 큰 관련 변수로는 우울이 40.6%의 설명력을 보였고, 전체 변수들을 포함한 설명력은 62.1%였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성공적 노화 정도에 우울, 자아존중감, 생산적 활동, 동거유형, 지각된 경제상태 및 연령이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노인들의 우울감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고 생산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연령이 적을수록, 지각된 경제상태가 좋을수록 성공적 노화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연령과 경제수준, 동거유형, 건강상태에 따라 성공적 노화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므로 고령 노인, 저소득층 노인, 동거유형 별 대상자를 구분한 성공적 노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성공적 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3 Pt 1), 745-746.
- Cho, H. K. (2002). *A study on the successful aging - through the adult learning of korean elder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 Cho, K. S., Lee, K. Y., & Kim, S. Y. (1999). A study on the powerlessness, self-Esteem and family support of elderly home resi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1(3), 436-448.
- Choi, Y. H. (2005).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according to living arrangement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7(3), 400-410.

- Hong, H. B.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productive activities and successful aging among the aged.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29, 203-235.
- Jang, I. S. (2006). The leisure type, health statu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2), 130-140.
- Jang, S. H. (200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status,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8(1), 36-46.
- Jeong, O. B. (2008). *Successful aging*.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Seoul, Korea.
- J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Research*, 11(1), 107-130.
- Kahng, S. K. (2008). Overall successful aging: Its factorial structure and predictive factor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2(1), 61-74.
- Kang, J. A. (2006). *The effect of old adults productive activity on successful ag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Kee, B. S. (1996). A preliminary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of geriatric depression scale short form-korea version. *The Korean Journal of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5(2), 298-306.
- Kim, C. G., & Park, H. J. (2007).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among the senior welfare center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4), 535-546.
- Kim, D. B. (2008).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elderly's successful aging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0(1), 211-231.
- Kim, D. B., & Park, E. Y. (2007).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females' productive activities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8, 339-358.
- Kim, J. H., & Kim, K. B. (2008). Comparative study of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between Institutionalized elders and elders living home.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Nursing*, 10(2), 182-192.
- Kim, K. B., Lee, Y. J., & Sok, S. R. (2008). A comparative study on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quality of life between the elderly living with family and the elderly living alon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20(3), 765-777.
- Kim, M. H., & Shin, K. R. (2005).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5(2), 35-52.
- Kim, O. S., Yang, S. J., Kim, J. H., Kim, N. Y., & Jeon, H. O. (2007). Leisure activities, cognitive function and depression in female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9(3), 436-446.
- Klumb, P. L., & Baltes, M. M. (1999). Time use of old and very old berliners: Productive and consumptive activities as functions of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54B(5), S271-S278.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9, April). 2006 Statistics of the aged. Retrieved April 9, from the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Web site: <http://www.mw.go.kr>
- Kwon, J. D., & Cho, J. Y. (2000).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20(3), 61-76.
- Lawton, M. P. (1971). The functional assessment of elderly people. *Journal of American Geriatric Society*, 19(6), 465-481.
- Lee, J. S. (2008).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successful aging of the elderly at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Mokwon University, Daejeon.
- Power & Precision (2009). *Power analysis*. Retrived March 6, 2009, From the Power & Precision Web site: <http://www.power-analysis.com>.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o, N. S., Chung, Y. H., & Kim, J. S. (2005). Factors related to quality of life among rural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7(3), 379-388.
- Sheikh, J. I., & Yesavage, J. A. (1986). Geriatric depression scale(GDS): Recent evidence and development of a shorter version. In T. L. Brink, *Clinical Gerontology: A guide to assessment and intervention*(pp. 165-173). New York: The Harwoth Press.
- Shin, J. S., Kim, H. M., & Hwang, S. K. (2004). Influence of self-esteem and family-support on powerlessness of hospitalized elderly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ult Nursing*, 16(3), 470-481.
- Won, J. S., & Kim, K. H. (2008). Evaluation of cognitive functions, depressi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receiving visiting nursing services.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8(1), 1-10.
- Yoon, H. S., & Yoo, H. J. (2006). Influences of family relations on the successful aging.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8, 5-31